

실적시즌 이후에 상위 제약주 회복 가능성 높다

6월 이후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상위 제약사 중심으로 주가 조정폭이 깊었다. 고밸류 에이션을 받고 있는 제약주가 실적부진이 드러나는 시기에 특히 취약한 모습이다. 그러나 제약주의 조정은 기업가치보다는 주식시장의 수급요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적시즌이 지난 만큼 R&D 비용 지출을 늘리며 국내외에서 미래 성장모멘텀을 창출하고 있는 상위 제약사의 주가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밸류에이션 제약주 실적시즌에 취약한 모습

제약주가 2분기 영업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주가 조정이 깊어졌다. 1분기에도 실적시즌에 주가가 조정을 보였고, 실적시즌이 마무리 되면서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제약주는 신약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여 현재 PER이 평균 30~40배에 있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다소 불안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R&D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정체되고 있는 상위 제약사 중심으로 실적시즌에 주가 조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Analyst

하태기

tgha@sk.com

02-3773-8872



실적시즌 마무리로 주가 회복 추세 진입 전망

제약주 하락이 기업가치의 변화에 기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식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로 판단된다. 주식시장의 매수세가 중소형 주에서 대형주로, 화장품과 제약/바이오에서 IT 주로 이동한 결과이다. 물론 일부 Pipe Line의 임상 실패 뉴스가 있었다. 수 많은 신약 Pipe line 중에서 임상 실패나 지연은 항상 발생 가능한 이슈다. 또한 영업실적 부진은 대개 R&D 비용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R&D 비용은 투자로 해석할 수 있고 미래의 기업가치를 확대시키는 요인인 될 수 있다. 제약주의 장기 상승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약주 투자는 변동성 관리가 가장 주요한 포인트다. 지금이 상승추세 내 단기 저점 일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상위 제약주 반등 전망

단기적으로 실적시즌에 조정폭이 깊었던 한미약품,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동아에스티 등 상위 제약사의 주가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